

제33회 NAKS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성료

DATE 15-07-24 10:08

글쓴이 : 토부장



각 지역 600 여 교사 및 관계자 참석 ... 제 2 회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대회 시상식

‘미래를 향한 창의적인 차세대 교육’이란 주제로 지난 16 일(목)부터 18 일(토)까지 사흘간 뉴저지 ‘티넥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 33 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총회장 최미영)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산하 14 개 지역협의회의 교사들을 비롯해 미국과 한국에서 초청된 강사 및 자원봉사자 등 총 600 여명이 참석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기환 뉴욕총영사, 정종철 워싱턴교육관, 하형록 팀하스 회장, 천진환 김구재단 부이사장 등도 참석해 이번 학술대회를 축하하며 교사들을 격려했다.

대회 마지막 날인 18 일에는 재외동포재단의 ‘스터디 코리안 콘텐츠 이용 안내’를 시작으로 강의를 이어졌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광복 70 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재외동포의 할 일”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정기총회를 통해 소속 회원학교에 재미한국학교협의회의 활동을 보고했다. 또한 재미한국학교협의회와 김구재단이 공동주최한 ‘제 5 회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대회’와

‘제 2 회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대회’ 시상식이 거행돼 총 13 명의 학생과 5 명의 교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마지막 순서로 교사들을 위한 만찬과 각 지역협의회 대항 장기자랑대회를 가졌다. 광복 70 주년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장기자랑을 통해 교사들은 즐겁고도 감동적인 무대를 연출하며 흥겨운 여흥의 시간을 즐겼다. 1 등은 1945 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보여주며 일본의 종군위안부 메시지를 전한 워싱턴지역협의회의 공연 ‘광복 70 주년 태극기와 함께 한 순간’이 차지했다.

최미영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은 장동구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사장, 각 지역협의회 회장,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집행부에게 ‘대통령봉사상(미국)’을 전달하며 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재외동포재단, 교육부, 외교부, 국립국어원, 국립국제교육원, 청주시, 경상북도, 동북아역사재단, 주미한국대사관, 문화체육관광부, 김구재단,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가 공동 후원했다. 2016 년 제 34 회 NAKS 학술대회는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릴 예정이다.

토니 채 기자 press@newskorea.com

[출처:2015_07_24 뉴스코리아]